

# 개혁운동의 선봉에 선 체코 작가들

차기 대통령 후보설의 반체제작가 바츨라프 하벨 등

동구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혁운동은 동독의 국경개방에 이은 체코공산당 간부들의 총사퇴로 절정에 이른 감이 있다. 체코에서는 현재 오랫동안 반체제활동을 벌여온 작가 바츨라프 하벨이 차기 대통령후보로 강력히 거론되고 있다. 본격적인 정치무대에 뛰어든 작가의 전례가 없지는 않으나 아무래도 희귀한 현상인 것만은 사실. 문학에서 오락 이상의 내용을 찾으려는 자세를 환상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더욱더 그런 어색함이 증폭되게 마련이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건, 인간성이 심하게 유린당하는 상황 속에서 작가가 단순한 문사로서 머물지 않고 사회적 개혁의 선봉장으로서 강력한 정치적 역할을 떠맡게 된다는 것은, 개명된 근대사회가 지금까지 지향해온 뿌리깊은 전통이기도 하다. 체코는 그러한 전통이 가장 일찍부터 확립되고 가장 폭넓은 대중적 기반을 유지해온 나라의 하나.

## 작가의 정치적 역할은 체코의 전통

체코인들은 마르틴 루터보다 1세기 이상 전에 벌써 개인주의와 그에 바탕을 둔 종교개혁을 부르짖고 나온 얀 후스라는 거물의 출현이 단적으로 상징하듯이, 서유럽의 다른 어느 나라 못지 않게 일찍부터 근대적 민족국가 수립을 향한 도정에 들어섰다. 그러나 세력팽창에 나선 합스부르크왕조의 오스트리아에게 합병당하면서부터 그때까지 찬란히 꽃피어온 체코슬로바키아(보헤미아왕국)의 민족문화는 빠른 속도로 퇴색하기 시작했다.

당시의 진보세력을 대변했던 프로테스탄트는 합스부르크왕조가 상징하는 보수적인 로마 가톨릭 세력에게 굴복했다. 모든 고등교육은 그때부터 독일어로 이루어졌으며, 판교계급이나 지식인사회에서는 오직 독일어만이 통용되었다. 체코어는 농부를 비롯한 하층민들의 구어로서만 간신히 명맥을 이어갔다. 웬만한 책은 모두 독일어로 씌어 있었다.

그러나 18세기 중반 이후 그런 사정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변화의 직접적인 계기는 독일의 낭만주의 철학자 요한 고트프리트 헤르더. 언어학에도 조예가 깊었던 헤르더는 법률체계나 정치체제보다 한 민족에게 중요한 것은 언어라고 주장했다. 언어는 개개인으로서의 인간이 그러하듯 놀랄 만큼 다양하며, 한 민족의 혼은 바로 그들이 쓰는 언어에 담겨 있었다. 헤르더의 저서에서 충격을 받은 체코슬로

바키아의 젊은 지식인들은 언어를 중심으로 자기들의 문화적 뿌리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기 시작했다.

## 200년전 체코작가들의 모국어 복원운동

젊은 체코 지식인들은 고유한 언어를 가지면서 전개되어온 자기 민족의 찬란한 역사에 놀라는 한편으로, 정작 그토록 소중한 모국어를 제대로 말하고 쓸 줄 아는 사람이 없다는 착종된 현실 앞에서 전율했다. 독일어밖에 몰랐던 이들 체코 지식인들은 거의 소멸되어버리려 하는 자신의 모국어를 복원시킴으로써 잃어버린 민족혼을 되살리고자 했다. 지금부터 불과 200여년 전의 일이었다.

그것은 지난한 작업이었다. 그들의 조국이 오스트리아에 합병당한 지난 150년 동안 서유럽에서는 근대소설과 근대과학기술이 출현하여 본격적으로 발전해왔고, 그에 따라 어휘의 수도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런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체코의 언어학자들은 불과 10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제까지의 촌스럽고 투박한 농부의 말을 고도로 복잡한 문학·과학적 표현요구까지 얼마든지 감당해낼 수 있는 정교한 인식언어로 탈바꿈시켰다. 그들의 작업은 창작이 아니라 번역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것을 발판으로 삼아 19세기 중반부터 수많은 문학작품이 쏟아져나오기 시작했다.

번역한다는 것, 쓴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애국적인 행위였다.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읽고 토론하는 것이 자신의 애국적인 책무라고 느꼈다. 작가는 부자유스러운 사회에서 억압받는 이들의 대변자이자 공공가치의 파수꾼이었다.

19세기의 문예부흥기 이후로 체코의 작가들은 강한 정치지향성을 보였다. 사람들은 작가에게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아니라 있어야 할 현실을 그려야 한다는 압박감을 주기까지 했다. 작가이면서 동시에 정치가로서 활동한다는 것이 체코에서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1848년 유럽 전역을 휩쓴 혁명의 열기 속에서, 자유주의 진영에서 거의 체코의 國父로까지 떠받들었던 사람은 바로 작가인 프란티셰크 팔라키였다. 1918년에서 1938년까지 체코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존속했던 공화국정부의 초대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은 역시 작가이자 철학교수였던 토마스 마사리크였다. 지식인 마사리크가 이끌던 체코슬로바키아공화국은



오랫동안 반체제활동을 벌여온 작가 바츨라프 하벨이 차기 대통령후보로 거론되는 등 최근 체코에는 작가 출신의 사회적·정치적 역할에 의한 개혁바람이 더욱 세차게 불고 있다.

파시스트가 기승을 부리던 1920~30년대의 유럽 정치판도에서 거의 절해고도와도 같았다.

## 스탈린 때 사회주의 창작방법 강요당하기도

그러나 2차대전 때 독일의 침공을 받은 이후로 체코작가들의 수난은 시작됐다. 많은 작가들이 가스실과 교수대에서, 지하감방에서 죽어 갔는데, 이들은 크게 보면 파시즘에 맞서 싸운 좌익 레지스탕스의 계보에 속해 있었다. 하지만 종전후 이들은 한때의 동지였던 스탈린에 의해 더 호된 시련을 겪게 된다.

형식주의나 세계주의는 일종의 범죄행위로 단정됐다. 과거 독일어밖에 할 줄 몰랐던 체코의 문예부흥기 지식인들이 자기 민족과 모국어에 대해 품었던 자발적이고도 진정한 사랑 대신에 이제 '사회주의적 애국심'이라는 강제적이고 왜곡된 형태의 사이비이념이 들어섰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가장 발전된 형태의 창작방법으로서 모든 작가가 따라야 할 전범으로 강요되었다. 작가조합의 창작기본지침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경제적인 여유를 누릴 수 있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식당에서 그릇을 닦거나 화물차를 몰아야 했다. 중간지대는 있을 수 없었다.

억압적인 관료적 일당통치하에서 그나마 문학이 왜곡된 형태로나마 명맥을 이어왔다면 정치라는 장은 완전히 소멸되었다. 반체제작가에 비해 반체제정치인은 훨씬 가혹한 탄압을 받았다. 예스맨(yes man)이 못될 경우 그는 감옥으로 사라져야 했다. 전통적인 요소도 물론 작용했겠지만, 작가를 빼놓고는 영향력있

는 인사가 모두 제거되었다는 사실이 오늘날 체코에서 바츨라프 하벨 등의 작가가 차지하고 있는 막대한 영향력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일찍부터 해외로 망명한 밀란 쿤데라 등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서방세계에서 높이 평가되는 체코 작가는 별로 없다. 혹자는 그것을 창작지침으로 인한 상상력 위축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 체코의 작가들은 작품을 통해서건, 현실적인 활동을 통해서건 조금씩 목소리를 키워왔다. 밀란 쿤데라, 바츨라프 하벨의 뒤를 이어 새로운 세대의 젊은 작가들, 예를 들어 카렐 페카, 이반 클리마, 렌카 프로차즈코바, 즈데네크 우르바네크 등이 등장했다. 이들이 쓴 원고는 비밀루트를 통해 서방으로 반출된 후 그곳에서 출판되었고, 출판된 책은 다시 체코 국내로 반입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작가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조금씩 키워나갔다.

## 작가 중심으로 전개될 체코의 개혁운동

1968년 당시 서기장이었던 두브체크를 중심으로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를 부르짖다가 소련군의 탱크에 짓밟힌 뼈아픈 경험을 갖고 있는 체코의 지식인들은 같은 동구권이면서도 헝가리나 폴란드에 비해 조심스럽게 행동 영역을 넓혀온 것이 사실. 그러나 바츨라프 하벨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체코의 지식인들은 작가 출신의 새로운 지도자를 중심으로 동구권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사회주의적 개혁을 향한 대장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지원>